

p. 4

책 소개

「**신약성서**」는 예수 탄생 후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서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와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다룬 《사도행전》, 신앙을 정의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가르친 편지들, 미래 사건들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예언한 《요한의 묵시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서》가 예수 탄생에 앞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새 계약을 소개하고 해석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신앙으로 일관되어 있다.

신, 구약 성경 모두 그 문학적 구성이나 내용과 형식이 실로 다양하지만 그 근본 주제와 목적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다. 성경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도 방대한 교리 체계에 있어서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은 결국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다.

p. 5

《베드로, **Peter**》 본래 이름은 시몬(**Simon**)으로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의 부르심에 배와 그 물을 놓고 좃아온 첫번째 제자이다.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으나 곧 회개하였다. 베드로전후서를 저술하였다.

《안드레, **Andrew**》 시몬 베드로의 동생. 예수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야고보 1, **James**》 요한의 형으로 큰 야고보라 불렸다. 예수와는 이종사촌간이다.

《요한, **John**》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이다. 12 사도 중 최연소자로 알려져 있다.

《빌립, **Philip**》 베드로의 동생. ‘빌립’은 ‘말(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바돌로매, **Bartholomew**》 빌립의 친구이고 나다니엘이라고 불렸다. 에티오피아, 인디아, 페르시아 등에서 전도를 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였다.

《도마, **Thomas**》 디디모라 불렸고, 과학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예수의 부활에 의심을 가졌다.

《마태, **Matthew**》 레위라고도 알려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금 징수원이었다.

《야고보 2, **James**》 알패오의 아들로 키가 작아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

《유다, **Judas**》 다대오라 부르며, 작은 야고보의 동생이다. 돈궤를 맡아 회계를 보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나중에 자살하게 된다.

《시몬, **Simon**》 시몬 베드로와는 다른 인물로 ‘열성 당원’이라고 불렸다.

《다대오, **Thaddeus**》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불렸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수리아와 아라비아 및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를 했으며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제 1 장

[아기 예수의 탄생]

p. 12-13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어느 여름, 하느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너는 여자들 중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하느님은 아기를 갖도록 널 택하셨다.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어라. 그는 위대할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녀가 천사에게 물었다. “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이 대답했다. “하느님께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너의 사촌 엘리자베스도 곧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녀는 늙어서 그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믿었다. “전 하느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p. 14 어느 날 밤, 요셉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느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미리이를 네 아내로 삼기라.” 하느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곧 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는 나의 백성들을 악에서 구할 것이다.” 그 후로 곧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고,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그 당시, 요셉의 마을은 로마 제국의 일부였다. 유대인은 로마인이 만든 법을 따라야 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자신의 출생지로 가서 그곳에서 세금 등기를 해야 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 결국 한 친절한 여관 주인이 마구간에 자게 해 주었다.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p. 16-17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 별 하나가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나타났다. 이 별은 동방에 있는 세 명의 현자들에게 발견되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서 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에루살렘 시에 잠시 들렀는데, 그곳에는 헤롯 왕이 살고 있었다.

세 현자는 헤롯 왕에게 그 별은 구세주가 오셨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헤롯은 두려웠다. 그는 새로운 군주가 자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헤롯은 현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를 발견하면, 그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소.”

p. 18-19 마침내 현자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 별은 이 작은 마을 바로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발견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으며 동방에서 가져 온 황금과 귀중한 향료를 그에게 바쳤다.

그날 밤, 한 천사가 현자들 각자의 꿈에 찾아왔다. 그 천사는 그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천사는 요셉의 꿈에 찾아왔다. 이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천사들이 말한 대로 했다. 헤롯 왕은 현자들로부터 예수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하자, 그의 병사들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예수님은 이집트에 계

셨기 때문에 무시하셨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헤롯 왕은 세상을 떠났다. 요셉은 그의 가족을 갈릴리 미움로 데려갔다. 이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다.

[세례 받은 예수님]

p. 20-21 엘리자베스의 아들인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다. 요한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느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요한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렸다. “사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삶을 하느님에게 이롭게 하시오.”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 주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군중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가 세례 받기 위해 앞으로 걸어왔을 때, 요한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요한이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세례를 내려 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대로 하게 하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가 맘에 드노라.”

[시험에 든 예수님]

p. 22-23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 사막으로 가셨다. 그는 40일 낮과 밤 동안 아무 것도 드시지 않았다. 사탄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 “당신이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이 말했다. “저 바위들을 빵으로 바꿔 보시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또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사원 지붕 위로 데려갔다. “지붕에서 뛰어 내려보시오. 만약 천사들이 당신을 붙잡는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것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이 하느님의 권능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세 번째 시도를 했다. 그는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 주었다. “당신이 날 숭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사탄이 말했다. “사람은 하느님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은 멀리 가버렸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 왔다.

제 2 장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p. 26-27 예수님은 마을에서 도시로 다니시며,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 받았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젊은이를 뽑으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다. 이 열두 명의 젊은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며, 함께 식사하고,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어느 일요일, 예수님과 사도들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댁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노부인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잠시 동안 쥐고 계셨다. 그러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열병이 사라진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

p. 28-29 그날 저녁이 되자,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다.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시 건강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위에 모여 들었다.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다. 그는 이혼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들의 감기와 두통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여행을 계속하셨다. 도중에, 그와 그의 사도들은 한 나병 환자와 마주쳤다.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가 간청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 나병 환자에게 올려놓으셨다. “나으라.” 그가 말씀하셨다. 그 나병 환자의 피부가 정상이 되었다. 병이 나은 것이다!

[산상 설교]

p. 30-31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보시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저의 것이다. 슬픔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정의로움을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정의가 다함을 볼 것이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p. 32-33 사람들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나는 이 선생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과 더불어 그 이상을 너희가 행하길 바란다. 그들은 너희에게 누군가 너희를 해치면, 너희도 그를 해쳐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것이 ‘눈에는 눈’이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받아치려고 하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의 한쪽 뺨을 치면, 고개를 돌려 그가 다른쪽 뺨도 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너희는 그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p. 35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의 선행에 제한을 두지 마라. 너희의 친절함을 비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절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기도할 때는 혼자 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이렇게 몇 마디 말씀만 드리면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폭풍을 잠재우다]

p. 36-37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배를 가져와 호수 안으로 조금만 저어다 달라고 하셨다. 그곳에서, 그는 호숫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지녔이 되자, 예수님은 가르침을 미치셨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주위에 있었고, 그는 쉴 시간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만 있을 수 있게 호수 반대편으로 건 가자.” 사도들이 노를 저어 가는 동안, 그는 배 뒤에서 잠이 드셨다.

곧 날이 매우 어두워졌다. 그들이 반쯤 건넌을 때, 폭풍이 일어났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파도가 산처럼 솟아올랐다. 사도들은 배가 뒤집어질까봐 두려웠다.

p. 38-39 폭풍우가 치는 내내, 예수님은 평화롭게 누워 주무셨다.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싶지 않았지만, 곧 그들은 너무 두려워졌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주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는 파도를 가로질러 내다보셨다. “잔잔해 지거라.”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바람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고요해졌다. 예수님은 엄한 선생님처럼 사도들을 쳐다보셨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했느냐?” 그가 물으셨다.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볼 뿐이었다.

제 3 장

[착한 사마리아인]

p. 44-45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여쭙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로 이 질문에 답하셨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여행하고 있었다. 강도들이 그를 공격하여 그의 돈과 옷을 훔쳐갔다. 그들은 그를 때리고, 길에다 죽게 내버려두고 갔다.

오래지 않아 한 사제가 그 길로 내려왔다. 그는 그 남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길 건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는 그 사내와 연관되는 것은 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리고 나서 사원의 한 유명한 교사가 길을 따라왔다. 그 역시 그 의지할 데 없는 남자를 보았으나 가던 길을 계속 가버렸다.

p. 46-47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마리아인이 그 남자를 보았다.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항상 사이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그 부상당한 남자를 보자, 그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도움을 주었다. 그 남자에게 물을 주고,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당나귀에 그 남자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남자를 보살펴 달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자 율법학자에게 물으셨다. “두들겨 맞은 남자를 본 세 사람 중 누가 진정 그의 이웃이었는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다. “비록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이긴 했어도 맞습니다.” “그럼,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하라.”

[선한 목동]

p. 48-49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만약 어떤 양치기에게 양 백 마리가 있다면, 그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그 양을 찾으면 그때 그는 기뻐한다.

그는 한번도 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아흔아홉 마리의 다른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두고 더 기뻐한다. 그는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간다. 가는 도중에, 그가 자신의 이웃들에게 외친다. ‘만세!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축하합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당신에게 향하길 원하신다.”

p. 50 예수님이 양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양치기니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온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따른다. 나 이전에 다른 양치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내 양들을 흠치고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내 양들은 이런 거짓 양치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양들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것이다.”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p. 52-53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혼자 계시기 위해 호수 옆의 조용한 장소로 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냈다. 아픈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자신의 슬픔은 접어 두셨다. 그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저녁때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먹일 만큼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눠 먹을 것이다.” 사도들이 항의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겨우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곳에는 적어도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 어떻게 그들 모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p. 54-55 “음식을 내게 가져 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음식에 축복을 내린 다음, 사도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그 음식을 몇몇 사람들에게 준 다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 놀랍게도 바구니에는 빵과 고기가 더 있었다!

사도들은 두 팔 가득 담아 사람들 속으로 다시 갔다. 몇 번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양팔에 가득 채워서 갔다. 오천 명 모두 충분히 먹었다. 그들 모두 배가 불렀을 때, 사도들은 남은 음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없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자 요한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러 언덕 꼭대기로 갔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p. 56-57 사도들은 배를 타고 호수 멀리 나가 있었다. 동이 뜨기 전, 큰 파도들이 배를 쳤다. 그때, 사도들은 물 위의 어떤 형체가 자신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귀신이다!” 그들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배를 향해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다. “주님, 진정 당신이

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맞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말했다. “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베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가리앉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그는 두려워졌다. 베드로는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가 외쳤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를 잡으셨다. “넌 믿음이 적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사도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제 4 장

[예수님의 변형]

p. 60-61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갑자기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누구냐?” 한 사도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부활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도가 말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물으셨다. 베드로가 먼저 말했다. “당신은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말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베드로의 팔을 잡으셨다. “너는 내 사도들 중 첫 번째이다. 네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나는 너를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내 말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p. 62-63 사도들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계속 말씀하시자 주의 길게 들었다. “너희들은 세상에 대한 나의 전도자들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사원의 사제들은 나의 죽음을 모의할 것이다. 나는 평범한 도둑처럼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후, 나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도들은 겁에 질렸다.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외쳤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기심을 버려라, 베드로나 너희 중 누구도.”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너희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 자는 가까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p. 64-65 며칠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사도를 데리고 가셨다. 그들은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은 산 정상에 섰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위를 올려다보셨다. 갑자기 그가 태양처럼 빛나셨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와 얘기했다. 그때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를 크게 기쁘게 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목소리에 세 명의 사도들은 겁에 질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올려다보니 예수님 혼자 계셨다.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너희가 여기서 본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다]

p. 66-67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 세 명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사로 막달레나와 그의 두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였다.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에 계실 때, 여동생들로부터 전갈이 왔다. “나사르가 매우 이피요.” 전갈의 내용이 이리했다. “그가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나사르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살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 줄 것이다.” 그가 설명하셨다.

이를 후,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르가 잠을 자고 있다. 나는 그를 깨우러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마음은 예루살렘과 가까웠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다. 그가 도착하셨을 때, 두 여동생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르가 나흘 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p. 68-69 “나를 나사르의 무덤에 데려다 주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입구에 바위가 놓인 동굴이었다. 예수님은 무덤에 오시자, 그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올리셨다.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지셨다. “나사르야, 나오너라!” 시신을 감싸는 천을 누른 사람의 형제가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숨이 막혔다.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르였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르를 어떻게 소생시키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고위 사제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 흥분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p. 70-71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는 사도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며, 나를 때릴 것이다. 나는 도둑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도들은 심란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여리고 마을에 머물렀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어 있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부자가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

p. 72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삭개오를 탐욕스런 징세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군가를 속였다면, 그 액수의 다섯 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좀더 가까이 가자, 예수님은 자신을 맞이하려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구세주가 오셨다!” 사제들은 옆에 서서 화난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제 5 장

[최후의 만찬]

p. 78-79 “다 보는 데서 그를 강제로 잡아갈 순 없어.” 사제가 말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야.”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도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에게서 나왔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유다는 사제들에게 갔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빨리 그리고 조용히 사로잡도록 자신들을 도와 주면, 은전 30 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엿보았다.

유월절의 첫날에 성대한 만찬을 드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의 사도들과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임을 알고 계셨다. 그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수건과 물 한 그릇을 가져오셨다. 그는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p. 80-81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다. “너희들이 따라야 할 본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고통으로 가득찼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얘길 해야겠다.” 그가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일을 할 사람은 그걸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빵을 집어 여러 조각을 내셨다. 사도들에게 빵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먹거라.” 그리고 나서 그는 포도주 잔을 집어 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흘릴 피다. 마셔라.” 그는 사도들 모두에게 잔을 건네셨다.

[예수님의 고난]

p. 82 예루살렘 바로 외곽에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곳에 갔다. 예수님은 동산 안으로 몇 발짝 더 걸어 들어가셨다. 그런 다음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서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다. 곧 수많은 성난 군중들이 길을 따라 내려왔다. 무리 중에는 로마 병사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가롯 유다였다. 유다가 군중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자가 바로 저 자요. 그를 체포하시오!”

p. 84-85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았다. 나머지 사도들은 두려웠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두들도 망갔다. 베드로는 군중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병사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폰티우스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유월절 중에는 통치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석방되기를 원하는 죄수를 한 명 고르라고 묻곤 했다. 그 당시 버리비리는 이름의 또 다른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발코니에 나가서 아래에 있는 군중들에게 물었다. “누구를 풀어 줘야 하느냐? 예수와 바라바 중에 고르거라.” 빌라도는 고위 사제들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군중 속에 많이 넣어둔 것을 몰랐다. 이 사람들이 외쳤다.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외침 소리는 나머지 군중들을 압도했다.

[십자가에 못박히다]

p. 86-87 빌라도는 그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거의 다 벗기고 그를 때렸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그를 놀렸다. 그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를 못박을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나무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두 범죄자 사이에 그 십자가를 세웠다.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로마 제정 시대에 범죄자를 벌하는 흔한 형벌이었다.

예수님이 외치셨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이까?” 몇 시간 후, 그가 다시 외쳤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거두소서. 당신의 손 안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p. 88-89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땅이 흔들렸다. 사원에 있던 커튼 하나가 갑자기 위에서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로마 병사들은 겁이 났다. “그는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어!”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어머니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의 곁에 있었다. 예수님의 신도였던 요셉이라는 부자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 세 명은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천으로 감싸고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묻었다.

[예수님의 부활]

p. 90-91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후,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향료와 향수를 가지고 왔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나가 있었다. 입구 옆에 흰 을 입을 형체가 있었다. 몸에서 빛이 나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했다. “나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러 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거라.”

마리아가 사도들을 찾아가 그 소식을 말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녀와 함께 무덤으로 다시 달려갔다. 거기서 두 사람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시신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를 감쌌던 천뿐이었다.

p. 92-93 그날 밤, 남은 열한 명의 사도들이 정찬 자리에 앉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방안에 가득 차면서, 예수님이 방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찾아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그분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전해야 한다.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도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나는 지금 나의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에게 간다. 그분은 나의 신이며 너희들의 신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알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그를 맞이 위해 하늘이 열렸다.